

condemning slavery. But as I pointed out last week Paul was realistic about the situation he faced. Slavery was an integral part of life in the ancient world. To call for sudden change (the abolishment of slavery) would have caused monumental chaos. It may also have damaged the churches' reputation. People would have connected the two events and seen the church as being the instigator of great social unrest.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Paul was addressing an existing issue. At no point in his writings did he ever personally endorse or promote slavery. But as an apostle called by Jesus Christ he knew he must advise people who lived in that time and place. So let us remind ourselves of what he said.

In verse number 1 of chapter 6 Paul spoke about the attitude slaves should have to unbelieving masters. The appeal of the Christian faith is understandable to people living in human bondage. Faith in Christ provided a hope that beyond the unfairness and misery of life here on earth lies something much better. This may have led some to use this promise of future freedom to disrespect and defy their human masters. They may have looked down upon their unsaved human masters and treated them with contempt.

The great danger of behaving like this is that it may cause their masters to curse God, and say damaging and hurtful things about the church. So Paul writes to warn them of this danger. Paul wanted the slaves to remember that they were Christ's representatives on the earth. This meant that they were called to live and work in a way that pleased God and brought Him glory. To do this meant submitting to those in authority including their slave masters. This is a difficult concept for us to grasp today. History tells us that many slaves owners were cruel and unfair. Slaves were often treated inhumanely and brutally. Despite this God called upon slaves to respect and honour their masters.

In verse 2 Paul's turns to deal with slaves who have believing masters. We might imagine that this was a much better situation for the slaves. But it could also throw up some difficult situation. Slaves might expect to get preferential treatment. They might imagine that now they were "brothers in Christ" with the masters that they should be advantaged in some way. Their boss should give them lighter duties to perform, more time off, and a generally easier life. They might think therefore that they could slack off a little. If the boss demanded that they work as hard as the other slaves this might result in anger and bitterness. This bitterness might flow either way. The slave might resent the owner for being harsh. And the master might resent the slave for expecting improved conditions than the other slaves.

So Paul writes to remind the slaves not to despise their masters. They are to remember that they are brothers in the faith. This calls for them to be loved and respected. The slave is to remember that if he works hard and does his best then it is a fellow believer who profits. This profit is good not only for the individual believer, but for the church in general. Furthermore, the slave is to remember that the slave master has been brought and paid for by the blood of Christ. This makes them beloved to the Lord. Therefore to despise or resent them is displeasing to God. We are after all commanded to love one another. Timothy was to teach these things to those in Ephesus. This was where we finished up last time.

지난주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의 마지막 장인 6 장을 다루었습니다. 처음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 절부터 보기 전에 지난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 6 장을 노예 문제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노예 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노예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World Population Review"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늘날 167 개국에 약 4,600 만 명의 노예가 있다고 추산됩니다. 이러한 현대 노예들 중 다수는 중노동이나 성매매 산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노예

인구를 유지하는 상위 3 개국은 인도, 중국, 북한입니다. 물론 바울 시대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노예 제도가 만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노예들의 힘으로 건설되고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국의 전성기에는 인구의 80 ~90%가 노예였습니다. 1 세기에 이 수치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도 중 일부가 노예들 그리고 노예 소유주(주인)였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m□□□□□□ □□□ □□ □□ □□□□, 미미하게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경멸합니다. 노예 제도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가까이 비난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 저자들이) 노예 제도를 더 강하게 비난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고대 사회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노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평판에도 손상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 거대한 사회 불안의 선동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은 그가 쓴 글에서 결코 노예 제도를 지지하거나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살펴 봅시다.

6 장 1 절에서 바울은 불신자인 주인을 대하는 종들의 태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속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불공평과 비참함 너머에 훨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이로 인해 어떤 노예들은 미래의 자유에 대한 이 약속을 지키 주인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주인을 멸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행동의 가장 큰 위험은 노예 주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노예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예 주인을 포함한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노예 소유주들이 잔인하고 불공평했습니다. 노예들은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예들에게 주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2 절에서 바울은 크리스찬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을 다룹니다. 노예들에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들은 특혜를 받으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잊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더 가벼운 업무, 더 많은 휴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편안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다소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다른 노예들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요구하면,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가혹하다고 원망하고, 주인은 다른 노예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는 노예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들에게 주인들을 경멸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형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존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종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동료 신자인 주인이 유익을 얻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익은 크리스찬 개인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유익합니다. 더 나아가, 종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주인을 구원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멸시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서 마쳤습니다.

3 If anyone teaches otherwise and does not consent to wholesome words, even the words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o the doctrine which accords with godliness,

Throughout human history mankind has been afflicted on many occasions by the outbreak of deadly plagues or pandemics. Let me tell you about three.

The ancient Roman Empire suffered a devastating plague between the years 165 and 180 AD. The pandemic came to be known as Antonine Plague or the Plague of Galen. The plague was imported into Roman territory from the Near East by soldiers returning from military campaigns abroad. It is estimated that the epidemic was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approximately five million people. At its peak it was killing 2,000 people per day in Rome.

Or what about The Great Plague of Milan. This outbreak took place between 1629 and 1631. Although referred to as the Great Plague of Milan it was actually a series of outbreaks of bubonic plague that afflicted large parts of northern and central Italy. It is believed that the disease was carried initially to the city of Mantua in 1629 by French and German soldiers. By 1630 it had spread across much of central and northern Italy. The plague was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millions and the downfall of Venice as a leading power in Europe

Finally, let me tell you about The Great Plague of London. As you may know the plague was spread by blood sucking fleas who were carried around Europe on the back of rats. The plague lasted for just eighteen months. From 1665 to 1666. It was to be the last major outbreak of the bubonic plague in England. However in that short time it was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approximately 100,000 people, amounting to almost 25% of the total population of London.

I chose these three plagues at random. There were countless others I could have mentioned. As deadly and terrifying as these three plagues were there is a plague that has far more deadly consequences. If you were unfortunate enough to contract the “Black death” (the bubonic plague) you could expect to suffer a short agonising death. History tells us that of those who contracted the plague, 4 out of 5 died within eight days.

The plague about which I am referring however has eternal ramifications. I am of course referring to the plague of false teaching. Just like the periodic pandemic outbreaks that afflict mankind the plague of false teaching flares up the church on a regular basis. While illness may kill the body, false teaching damns the soul. This is why we must be ever vigilant to spot and then stamp it out.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비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치명적인 전염병의 발발로 인해 여러 차례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중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서기 165 년에서 180 년 사이에 재앙적인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안토니우스 역병 또는 갈레노스 역병으로 불리고, 해외 원정에서 돌아온 병사들에 의해 근동에서 로마 영토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약 500 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절정기에는 로마에서 하루에 2,000 명이 사망했습니다.

밀라노 대역병은 어떨까요? 이것은 1629 년에서 1631 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밀라노 대역병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지역을 강타한 일련의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1629 년 프랑스와 독일 군인들에 의해 만토바로 처음 전파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1630 년까지 이 전염병은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유럽의 주요 강국이었던 베네치아는 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런던 대역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염병은 쥐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벼룩에 의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전염병은 1665 년부터 1666 년까지 단 18 개월 동안만 지속되었고, 영국에서 발생한 마지막 대규모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약 10 만 명이 사망했고, 이는 런던 전체 인구의 거의 25%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전염병을 무작위로 선택했지만 다른 전염병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세 전염병이 치명적이고 □□□□□,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행하게도 "흑사병"(선페스트)에 걸렸다면, 짧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 병에 걸린 사람 5 명 중 4 명이 8 일 이내에 □□□□□□.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병은 영원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바로 거짓 가르침이라는 병입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주기적인 역병처럼 거짓 가르침이라는 병 역시 교회 안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질병은 육신을 죽이지만, 거짓 가르침은 영혼을 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이 병을 발견하고 근절해야 합니다.

As Paul begins to bring his letter to a close he returns to an important theme he mentioned previously (see 1:3). The theme is the need for church leaders to be on the look-out for false doctrine. For men teaching something different to the one true gospel. This is an important theme that runs through the epistle.

As we have seen in previous studies men had arisen in the Ephesian church who were not teaching or promoting sound doctrine.

Timothy had been especially charged by Paul to put a stop to these men and the dangerous lies they were peddling. So in effect what we are reading here and in the following verses serve as a template for what to look out for.

We might picture it as being like the diagnostic technique used by medical doctors. When you are feeling poorly and visit your doctor what do they do? They run through a checklist of possible symptoms and then arrive at a diagnosis of what is wrong. Have you been coughing? Do you have a high temperature? Do you feel a pain here or here? Here's what I think is wrong. A similar thing can be seen with the propagators of lies. They will manifest certain characteristics (symptoms) that will reveal them to be false teachers. All Timothy needs is the appropriate diagnostic check list.

What Paul says here is timeless in its application. We all have to be on our guard to ensure that false ideas, or slightly distorted teachings do not enter the church. Elders simply cannot afford to lose focus or fail to adequately check that the truth is being taught. This is one of the potential pitfalls of the cell group or small group system. Without careful oversight small groups can become the breeding ground for false ideas. It's also an issue in large churches where there may be so many things going on that it's hard for the pastor to oversee them all adequately. Let's look closely than at what Paul has to say.

The first symptom of a false teacher is that they teach something "otherwise." What he means here is teaching that is different to the truth that he and the other apostles had been teaching. One of the hallmarks of false teachers is their desire for novelty. They want to be seen as different, edgy, special or unique. So we should beware of people who profess that they have a new or fresh insight. It may be true, but it's more likely to be a twisting or distorting of existing truth in order to give the appearance of being something new.

The next thing to be aware of is that the false teachers do not consent, or agree with the words of the apostles and even the words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iteral meaning here is that these wicked men are not teaching what is "hygienic" or healthy. They are not imparting a teaching that promotes good spiritual health. Instead, what they are giving will result in sickness and disease. This is because the heart of their teaching is not rooted in scripture. They do not hold firmly to God's Word being the foundation for everything else. Now it may be the case that at times they do quote scripture or refer to passages from the bible but on many more occasions they will either add to or take away from God's revelation.

We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today. If you want a depressing study why not see what many of the major denominations have to say about scripture. Some of the countless errors we see include denying the very existence of God.

Several years ago on a British talk show a vicar from the Church of England appeared as a guest

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오류 중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영국의 한 토크쇼에 영국 국교회의 한 목사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나중에 목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오류를 가르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삼위일체를 공개적으로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동정녀에서의 탄생을 부인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음을 부정하고,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 □□ □□□ □□□ □□□□ □□□□ □□□□ . 그분이 인격체가 아니라, 힘force 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의 진실성, 영감, 권위, 무오성을 부정하는 악랄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약하고 무능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또한 놀랍지는 않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죄를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 보고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he is proud, knowing nothing, but is obsessed with disputes and arguments over words, from which come envy, strife, reviling, evil suspicions, 5 useless wranglings of men of corrupt minds and destitute of the truth, who suppose that godliness is a means of gain. From such withdraw yourself.

The attitude of false teachers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pride. We are speaking about conceited or arrogant men. People who are “puffed up” with their own self-importance. It takes an immense ego to place oneself as judge of the Bible. This is the attitude of these false teachers. Well, obviously I know better than God. God was clearly wrong about this or that, but luckily enough I'm here to correct the error. You get the picture.

False teachers always have an over inflated sense of their own value and importance. The mark of a true (genuine) bible teacher is humility. Such teachers come to the scriptures with the desire to discover and then convey the truth. They will readily admit that some parts of God's revelation confuse or puzzle them. They are humble in accepting the fact that they do not know it all. Such an attitude is not seen in false teachers. We have an idiom in English which states that someone is “full of hot air.” They are puffed up like a balloon but the substance of what makes them appear big is nothing. Prick them with the pin of truth and they will deflate very quickly.

This is especially true for false teachers because as Paul highlights they know nothing. Now clearly these false teachers know something. They could hardly command a following if they had nothing that at least seemed substantive to say. These false teachers may indeed seem very knowledgeable when it comes to the scriptures. But what Paul is driving at here is that when it comes to the really important truths these men know nothing. They do not understand the sound words of life that were imparted first by Jesus, and later by the apostles. Because they are so sure that what they believe is correct it often leads to the next flaw Paul identifies.

Instead of focusing upon the vital truth of the gospel these men are obsessed, or fixated upon petty disputes or arguments. What we are speaking about here are people who love to get tied up bickering over what words mean. Or questioning in endless detail things that are rather trivial or unimportant. These are men who are massively majoring on the minors.

Now we want to be careful here when it comes to the meaning of words.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predominately in Koine Greek. We are reading it today in English or Korean. This means that translators have taken the original language and tried to convey the meaning using English or Korean words. Naturally at times it is hard to do this without losing something from the original. As you know from time to time I will give you a Greek word and explain how it was used in its original context. But w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is men who are openly disputing the plain meaning of a word so that it can be twisted to fit their agenda.

The great danger from such an approach is that it brings disunity and disharmony into the church. Paul describes what may result. It may result in envy. Envy is the feeling of discontent we feel over the advantages or popularity enjoyed by others. Pastors are not immune from this. The pastor of a small struggling church may envy the pastor who leads a large successful church. They may feel that it is unfair that they are not seeing much fruit from their efforts.

It may result in strife, which often manifests itself in the abusive language of slander and insult. Slander simply means to say something wicked or evil about someone else and their ministry.

Again pastors can at times be rather cruel and biting when it comes to how they speak about others in the ministry. So-and-so pastor is weak on doctrine and bible knowledge, he's only popular because he tells humorous anecdotes.

The end result of all of these arguments and debates is friction and disharmony. False teachers constantly rub each other the wrong way.

The truth is as follows. False teaching can never produce unity. Only the true gospel unites. When the gospel is our focus we don't worry about silly irrelevant things. Our attention is fixed on the life changing message of Jesus Christ.

Paul then underscores why they are focused solely upon their own false ideas. It is because they possess corrupt or debased minds. To the natural man the things of God seem strange and incomprehensible. As we read in Paul'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But the natural man does not receive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nor can he know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 Cor 2:14)

Because their minds are tuned to the things of the flesh they are unable to correctly handle the things of God. The truth will always elude them. The only hope for these men is if they repent of their sins and embrace Christ. But given their prideful disposition such a thing seems unlikely.

The final thing that Paul touches upon here is their motivation. What ought to be the motivation for an elder or pastor? The desire ought to be to faithfully serve the Lord and joyfully participate in sharing the gospel and in doing so glorifying God. It's reasonable, as we saw in previous studies that a pastor be rewarded for their efforts. But this should not be the motivation for their service. The passion and drive to serve should come from God's call to participate in Kingdom work.

This desire to faithfully serve God is sadly not what drives the false teachers to seek the pulpit. False teachers are lured by the prospect of money (material gain). They regard preaching and teaching (working in the church) as a means of obtain gain. This may transpire in a number of ways. The most obvious is that the pastor would receive a payment for their work. An offering would be taken and a percentage would be set aside for the pastor. But there were other ways the pastor might profit. He might be gifted material things. Clothes, food, land or property. He might also receive invitations to dine out at people's houses. Or he might be offered discounts in believers shops or at the local market. It's doubtful that a pastor in the Ephesian church would ever have been "rich." But they could have lived quite comfortably.

Clearly someone whose sole motivation is to make money or prosper is not someone who is going

to faithfully and honestly present the truth of God's Word. They are likely to distort or twist it to make it appealing or favourable to their hearers. Preaching that is confrontational and convicting is unlikely to come from such men. Not every sermon needs to follow such a pattern, but it is required from time to time. For this reason we are to avoid false teachers. This is Paul's advice to Timothy and it holds true for us today. They have nothing of benefit to offer us and as thus are to be avoided.

Several weeks ago Tyrone, Pastor Bell and I were discussing an online ministry that posts interesting videos on contemporary culture. Tyrone and I had enjoyed their content for some time. However it recently came to light that the senior pastor in this ministry held some strange, unorthodox positions. He was promoting false and dangerous teachings. It was Pastor Bell's advice that we stopped consuming this ministry's output. Tyrone and I heeded his advice. There is plenty of good sound teaching to be found. We need not waste our time consuming things that cannot benefit our spiritual walk. Let me summarise what Paul is saying.

The symptoms exhibited by false teachers are clear and easy to discern. They deny the truth, and their teaching does not produce godly living. These men are arrogant and ignorant of spiritual truth. They spend their time in foolish speculations that lead only to chaos and division. In rejecting the truth they have sealed their own fate. Unless they repent they face eternal destruction. And finally they are driven by greed. It's money, and material gain and not God's glory that spurs them on. This is why we are to avoid them.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안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꾀를 내며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악의 방도로 꾀를 내는 자들의 다름이 일어나라

거짓 교사들의 태도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자만심이 강하고 거만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성경의 심판자로 여기려면 엄청난 자만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지, 하나님은 여기 저기에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행히 내가 그 오류를 바로잡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죵?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립니다. 참된 성경 교사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참된 교사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전달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중 어떤 부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지 못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꾀를 내는 자들은 영어나 영어를 “full of hot air 헛소리를 늘어놓는다”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만, 그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본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라는 핀으로 찌르면 금세 바람이 빠져버립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테, 바울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면 추종자들을 이끌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참된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적한 또 다른 결함으로 이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중요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꾀를 내는 자들의 다름이 일어나라. 그들은 단어들 words 의 의미를 놓고 사바하거나, 꾀를 내는 자들의 다름이 일어나라. 신약성서는 코이네 그리스어 Koine Greek 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어나 한국어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자들이 원어를 그대로 가져와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여 의미를 전달하려고 의도했음을 뜻합니다. 물론 원문의 내용을 잃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리스어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가 원래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단어의 명백한 의미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의

도에 맞게 바꿉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가장 큰 위험은 교회에 분열과 불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설명합니다. 시기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려는 이점이나 인기에 대해 느끼는 불만입니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는 성공하는 큰 교회의 목회자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많지 않은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종종 중상모략과 비방을 하는 악한 언행으로 나타납니다. 중상모략은 다른 사람과 그들의 사역에 대해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사역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때때로 다소 거칠고 신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교리와 성경 지식이 부족한데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주어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과 분쟁의 최종 결과는 마찰과 불화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결코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복음만이 연합을 이룹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리석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 신경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고정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왜 자기들의 거짓된 생각에만 집중하는지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길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 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전 2:14)

그들의 마음은 육신의 일에 치우쳐 있어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들을 파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한 본성을 고려하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마지막 주제는 그들의 동기입니다. 장로나 목사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을 충실히 섬기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기쁘게 참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목사가 자신의 노고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기려는 열정과 원동력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인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이 설교단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려는 이러한 열망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돈(물질적 이득)에 유혹됩니다. 그들은 설교와 가르침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목사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헌금을 거두고 그 일부를 목사를 위해 따로 떼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옷, 음식, 땅 또는 부동산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도들의 상점이나 지역 시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부유"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돈 버는 것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충실히 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목사는 회중에게 도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모든 설교가 그런 식일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고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므로 파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모든 형편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을까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잘 □□□□ □□□□. 더 나아가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았기에, 이곳에 보물을 쌓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행동 □□, □□□□□□□□ □□□□ □□□□ □□□□.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계속 읽어 봅시다.

7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is* world, and it is certain we can carry nothing out. 8 And having food and clothing, with these we shall be content.

Like all parents I remember meeting my daughter for the first time. What a moment it was to finally encounter in the flesh that life that I had seen grow from the size of a pea to a fully formed infant. It's one of the most unforgettable moments in life.

I'll confess that I was a little shocked at quite how red and dirty she looked. The nurse rushed her off and gave her a bath. She was much cleaner after her bath, but still rather red.

I'll tell you something else that's interesting about all new born infants. I believe it's the same all over the world. Are you ready to be astounded? All babies are born naked and empty handed! No baby enters this world clutching a little purse stuffed with money. No child emerges from the womb gripping a little sack of diamonds. We enter this world with nothing and that's how we exit.

In Job chapter 1 verse 21 this is affirme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shall I return there.”

It does not matter how much wealth you accumulate. How many cars, houses, private jets, swimming pools, designer clothes and gold you have here on earth you can't take it with you.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Aurora Schuck. I think you will find it interesting. Aurora was originally from Cuba. She came to the US in 1947 to visit her family and whilst in Ohio met a man named Raymond. They fell in love and married in 1948. Raymond was a plumber by trade and ran a very successful business. In 1976 Raymond gifted Aurora a red Cadillac convertible. She loved the car and treasured it for the remainder of her life. When she died in 1989 after a long fight against cancer she asked to be buried with her car. This was easier said than done. Raymond was forced to buy 14 burial plots and have a special concrete tomb constructed. Eventually the grave was ready and after the service the car was lowered down and then Aurora's coffin was placed on top.

What do you think you would find if you were to dig up that grave today? You'd find the remains of a 1976 Cadillac convertible. Being buried under the ground for 36 years has probably left it in a badly decayed state. My point is that Aurora did not get to take it with her. She's not driving it in heaven. We can only enjoy the things of this world here and now. That's why this crazy desire some people have to amass stuff is so foolish.

The verse ends with Paul reminding us of what really should give us contentment.

It's really very simple. If our daily needs (not necessarily wants) are being met then we should be content. If we have shelter, enough to eat and adequate clothing then really what more can we ask for. Of course we live in a world that would scoff at such a statement.

How could you possibly be happy without the latest high tech gadgets, several refrigerators full of food and multiple wardrobes stuffed full of clothes. Quite easily really. I'm known and loved by God what more do I need.

Let's continue.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애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모든 부모처럼 저도 제 딸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원두콩만 한 크기에서 온전한 아기로 자리나는 모습을 마침내 직접 눈으로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딸아이가 정말 붉고 지저분해 보여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딸아이를 재빨리 데려가 목욕을 시켜 주었습니다. 목욕 후 딸아이는 훨씬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붉었습니다.

모든 신생아에 대해 흥미로운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아기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모든 아기는 발거벗은 채 반손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아기도 돈이 가득 든 작은 지갑을 움켜쥐고 □□□□□□□□. 어떤 아이도 자궁에서 작은 다이아몬드 자루를 움켜쥐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고,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욥기 1 장 21 절에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 모퉁에서 발거벗고 나왔사온즉 또한 발거벗고 그리로 돌아가오라"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자동차, 집, 개인용 제트기, 수영장, 명품 의류, 그리고 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을 때 그것들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오로라 슈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입니다. 오로라는 쿠바 출신입니다. 1947 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왔고, 오하이오에서 레이먼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1948 년에 결혼했습니다. 레이먼드는 배관공이었고, 매우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1976 년 레이먼드는 오로라에게 빨간색 캐딜락 컨버터블을 선물했습니다. 오로라는 그 차를 사랑했고, 남은 생애 동안 그 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랜 암 투병 끝에 1989 년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자신의 차와 함께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레이먼드는 14 개의 묘지를 구입하고 특별한 콘크리트 무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무덤이 완성되었고, 장례식이 끝난 후 차가 무덤 안으로 내려졌고, 오로라의 관이 그 위에 놓였습니다.

오늘 그 무덤을 파헤친다면 무엇을 발견할 것 같나요? 1976 년식 캐딜락 컨버터블의 진해를 발견할 겁니다. 36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서 심하게 부식되었겠죠. 제 말은, 오로라가 그 차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천국에서 그 차를 운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현재 여기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모으고 소유하려는 지나친 욕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끝맺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원하는 것이 아니라)가 충족된다면 만족해야 합니다. 집과 충분한 식량 그리고 적당한 옷이 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웃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신 첨단 기기, 음식으로 가득 찬 여러 대의 냉장고, 옷으로 가득 찬 여러 개의 옷장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속합시다.

9 But those who desire to be rich fall into temptation and a snare, and into many foolish and harmful lusts which drown men in destruction and perdition.

Can you guess a child's most common response to an adult's question of,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When I was young it was the following. I want to be rich or famous. Or

perhaps I want to be rich and famou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people cling very tightly to the belief that money and wealth equal happiness. In 2023 Matthew Killingsworth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s Wharton School carried out research to see if this belief could be proven. His findings concluded that it is indeed true. The more money you have the happier you are. The reason for this he concluded was that money gives you control. Wealth enables you to make your own decisions. It means that you are not dependent upon other people or things.

But Paul is not really addressing those who are rich. What he is speaking to here are people who want to get rich. People whose passion and drive in life is the acquisition of money or wealth. This is their single all consuming priority. Perhaps this is something that has, or still affects you. Perhaps you have been, or are still motivated to want to obtain more and mor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aking money, seeking to be comfortable or wanting to improve one's situation. A good strong work ethic is a Christian virtue. But this understandable desire can easily slip into greed and covetousness. It can seriously damage our spiritual walk. So let's see what three things can happen to people who desire to get rich.

First, those who desire wealth frequently "fall" to temptation. Now all people are subject to temptation. But Paul is saying here that the temptation of riches is a particularly strong one. We all know this to be true. People often go to extraordinary lengths to try and get rich. I am speaking about, fraud, deception, robbery, gambling and even murder. Frequently the urge to "get rich," or to seek material prosperity at all costs, leads to disaster. In contrast, believers are to resist temptation and live for Christ.

Second, those who desire to be rich fall "into a snare." The Greek word Paul uses here is *pagida*. It literally refers to an animal trap. This was usually set with a rope or net and was used to capture an animal lured in by bait. In a similar way, those who are tempted into seeking riches end up in a trap and are doomed.

The third point is closely related to the second. Longing for riches amplifies the strength of other temptations. Though not explicitly listed here, some of these could include the urge to cheat, steal, or lie in order to increase one's wealth. So the temptation of greed results in a multitude of other sins.

In general the desire to want to get rich often plunges people into ruin and destruction. It leads to unhappiness and discontentment. It may result in poor health and premature death.

In many cases it results in broken relationships, damaged families and intense loneliness. Most seriously of all it may result in perdition which means eternal damnation. Don't allow your desire for wealth and material things to forever separate you from a loving God.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with the following verse.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야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꺾이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른이 "자라서 뭐가 되고 싶나?"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의 가장 흔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또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아니면 부유하면서 동시에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돈과 부가 곧 행복이라는 믿음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오틀 스쿨의 매튜 킬링스워스는 이러한 믿음이 맞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 통제력을 주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니,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부자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즉 그들의 삶의 열정과 원동력을 돈이나 부를 얻기 위해 쓰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영향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고, 인력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선하고 강한 직업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욕망이 쉽게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종종 유혹에 "빠집니다". 물론 누구든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부에 대한 유혹이 특히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 □□ □□ □ 단적인 일들을 합니다. □□, 기만, 강도, 도박, 심지어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충동, 즉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려는 충동은 종종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유혹에 저항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둘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무에" 빠집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는 'παγίδα(pagida)'입니다. 문자 그대로 동물을 잡는 덫을 뜻합니다. 이 덫은 보통 밧줄이나 그물을 쳐서 마끼에 유인된 동물을 잡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를 추구하려고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덫에 걸려 파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요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를 갈망하는 것은 다른 유혹의 강도를 증폭시킵니다. 여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부를 늘리기 위해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욕의 유혹은 수많은 다른 죄악을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사람들을 파망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불행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건강 약화와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욕망은 깨진 관계, 손상된 가족,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을 초래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파멸, 즉 영원한 저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 □□□□ □□□□.

오늘의 공부를 다음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for which some have strayed from the faith in their greediness, and pierced themselves through with many sorrows.

This verse is well known and frequently quoted. Or, to be more accurate it is often misquoted. What do we often hear people say,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This is not what the verse says. What it actually says is that the love of money is what is wrong. The expression “Love of money” translates the Greek word *philarguria*. This is a compound word made up from two existing words combined to form a new word. The first word *philo* means love and the second *arguros* means silver. So literally speaking we are talking about a “love or affection for silver.”

So let us be aware of that important distinction, money per se is not a bad thing. This is because it is a neutral thing. It's a tool that we use. Like all tools whether it is used for good or evil rests in the hands of the user. I can use my money to buy a gun with which to shoot people. Or I can use my money to build an orphanage or help those in need. The money is simply a tool that helps me achieve my ends.

So it is the love or desire for money, and not money itself that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The desire to get rich often drives people to do terrible things. Most alarming of all is that this craving

1. Stay away from false teachers

In the first three verses we looked at today Paul spoke about the false teachers and the evidence that proved they had lost their focus. Simply put their eyes had wandered away from Christ and were now centred upon something else. Whatever it was that had caught their attention it was not what they, or their followers needed. These men were lost and people who are lost make terrible guides. Imagine going on a trek through the Amazon jungle. You need a guide who knows the way.

What could be worse than finding yourself deep in the jungle and the guide informing you that they are a phony and have no idea how to return to the camp.

It is the same when it comes to being fed God's Word. You need pastors and elders who have proven over time to correctly and carefully handle God's Word. Men whom you can trust. Not necessarily to know it all, and have all the answers. But men who are focused on the gospel message. Men who seek to honour, glorify and magnify the greatness of God in their ministry. So let us look for such men and beware of false teachers.

1.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오늘 10절 처음 세 구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중심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눈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10절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고, 길을 잃은 10절 형편없는 안내자입니다. 아마존 정글을 트레킹한다면,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깊은 정글 속에 있는데 가이드가 자신이 가짜이며 캠프로 돌아가는 길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신중하게 다루는 것으로 입증된 목사와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10절. 물론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답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10절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10절 따르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2. Learning true contentment

The Apostle Paul, inspired of course by the Holy Spirit provides us with the correct approach towards wealth. As Paul tells us he experienced times of plenty and times of want. But in every circumstance he had learned to be content. Pay attention to the word “learned.” To learn something implies an applied effort. Not something that comes naturally. At school we had to apply ourselves to learn the multiplication tables for example. It's much easier to learn be content when we have enough. The danger in this situation is that we can become complacent or greedy for more.

It is far less easy to learn to be content when we are suffering or in need. At such times we may feel that God is depriving us, or making us suffer. We may experience bouts of envy that others have more than we do.

But the truth is that we are all rich beyond measure. Actually compared to many around the world we are materially rich beyond measure. Most people can only dream of the nice apartments, new cars, savings in the bank and a whole range of appliances and gadgets that we take for granted. But even if we are materially poor we are still unbelievably rich. This is because we have the gift of salvation. We have the reward of eternal life in God's presence to look forward to. This means that no matter what ups and downs we may experience in this life we are to be filled with joy. We can be happy and content with what we have because we know this time on earth is just a fleeting temporary thing. The everlasting contentment is yet to come. So let us all learn to find true contentment in what the Lord Jesus Christ did for us.

2. 진정한 만족을 배우기

□□□□ □□ □□ □□ □□ □□ □□ □□ □□ □□□□. 바울이 말했듯이, 그는 풍족한 때와 궁핍한 때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다(learned)"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우리는 구구단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충분히 가졌을 때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탐욕스럽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고통을 겪거나 궁핍할 때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넘치도록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 □ □ 은행 예금,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온갖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꿈 속에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라는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넘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단지 스쳐가는 일시적인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가진 것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만족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